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독자 시선 붙잡는 ‘선택과 집중’...전략적 편집 중요”

박선영 한국일보 편집부장, 뉴스 전달력 강조
“사진·인포그래픽·제목까지 핵심만 살려야”

“독자의 시선을 붙잡는 신문은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20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대강당에서 ‘매력 있는 광남일보’를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서 박선영 한국일보 종합편집부장은 “편집기자는 독자 입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며 편집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장은 “편집 과정에서 ‘모두를 보여주려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인물이 많은 사진은 클로즈업이나 가로와 세로의 비례를 바꾸는 등 크롭 작업을 통해 핵심만 드러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인물 사진의 얼굴은 최소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확보해야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사진의 역할 역시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포 하나의 뉴스’로 인식해야 한다”며 “회의나 행사 위주의 형식적인 사진은 줄이고, 의미와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에 맞추기 위해 역지로 사진을

끼워 넣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텍스트로 담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독립사진 활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인포그래픽 역시 ‘많은 정보’보다 ‘핵심 정보’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사를 보완해주는 인포그래픽은 한눈에 들어오는 가시성과 직관성이 중요하다”며 “과감하게 정보를 줄이고 크기를 키워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독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 선택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했다. 제목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독자가 기사에 다가가기 쉽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목을 스트레이트 성으로 뽑는 것도 좋지만 지역밀착형 생활 기사 등의 경우 독자 눈높이에 맞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며 “예를 들면 중동 전쟁처럼 일반인들이 설명하기 힘들고 거리가 먼 내용보다 갑자기 거름값이 올라



박선영 한국일보 종합편집부장은 20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대강당에서 ‘매력 있는 광남일보’를 주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함몰되는 방식이 거름값을 가깝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신문과 지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제목과 섬네일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핵심 키워드

를 제목 앞쪽에 배치하고, 섬네일에 보이는 이미지를 가로형으로 구성하는 등 지면과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섬네일에서 인물 얼굴이

잘린다면 화면으로 볼 때 독자의 눈에 허전해 보이지 않고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박 부장은 “모든 기사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기사를 과감히

키우고 강조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며 “그래픽과 사진, 지면 구성 전반에 걸친 전략적 판단이 신문의 차별화를 만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gwajody0316@gwangnam.co.kr

해피플러스, 광주장애인사격연맹에 500만원 지정 후원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아 전달...훈련 여건·경기력 향상 기대

광주·전남 기업 CEO 봉사단체 해피플러스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 체육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일 남부대학교 사격장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해피플러스(회장 이학재)로부터 광주 장애인사격 발전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이학재 해피플러스 회장(㈜아로마리프 회장), 최창규 을로운수 대표, 황영미 미래팜농업회사법인 대표, 주성관 광주시장장애인사격연맹 회장(금호테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은 해피플러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주성관 광주시장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학재 회장이 300만원, 최창규 대표와 황영미 대표가 각각 100만원씩 후원해 총 500만원이 마련됐다.

후원금은 광주 장애인사격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학재 해피플러스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장애인사격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해피플러스 회원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며 “다양한 후원 모델을 통해 장애인체육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설립된 ㈜아로마리프는 기능성 속옷과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을 국내외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진출해 있다.

이학재 ㈜아로마리프 회장은 광주 제33호 아나소사이티 회원으로, 장학 사업과 발전기금 기부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상(2021)과 행복만 부자상(2023)을 수상한 바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 기업 CEO 봉사단체 해피플러스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체육 지원에 나섰다. 왼쪽부터 최창규 을로운수 대표, 이학재 해피플러스 회장(㈜아로마리프 회장),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주성관 광주시장장애인사격연맹 회장(금호테크 대표), 사진제공=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광주북구새마을회는 최근 각화동 힐스테이트 인근 녹지공간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심 생태계 회복을 위한 '1000그루 나무 심기'를 진행했다.

광주 북구새마을회,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전개

각화동 인근 녹지 공간 확충

광주북구새마을회는 최근 각화동 힐스테이트 인근 녹지공간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도심 생태계 회복을 위한 '1000그루 나무 심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6 평화의 숲 조성 캠페인'의 하나로,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식재 활동은 각화동 힐스테이트 자치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각화동 힐스테이트 주변 인

도에 조성된 녹지 공간에 생명력이 강하고 도심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굴참나무를 정성껏 심으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김옥자 북구새마을회 부회장은 “이번에 심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 도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심 녹지 공간과 공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나무 심기 사업을 전개해 녹색 도시 북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새마을회는 이번 활동에 그치지 않고 향후 문흥동 ‘독서의 거리’ 일대에도 추가적인 나무 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정기총회

유통환경 변화 대응 전략 논의
농협법 개정안 관련 건의 채택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선도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사업 계획과 주요 추진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마케팅 확대 △상품 차별화 전략 △고객 중심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최근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농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참석자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 설립 취지와 협동조합 원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농업과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농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화순경찰-엘지유플러스,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금융정보 취약계층 550여명 대상 찾아가는 치안 서비스

화순경찰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엘지유플러스(LGU+) 합동으로 화순의 한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55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엘지유플러스(LGU+) 광주영업팀과 사전 협업, 보이스피싱 범죄가 IT기술과 결합해 지능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정보 취약계층인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스마트폰 악성앱 탐지 시스템 설치 지원, 피해예방 수칙 제공



등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했다. 양신철 화순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고 실질적 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